

#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호감도, 특질 판단을 매개하여 과제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정 명 선 · 김 재 숙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가정과학연구소 연구원 ·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The Effects of Perceived Facial Attra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Clothing on the Task Performance Evaluation mediated by Likability and the Trait Evaluation

Myung-sun Chung · Jae-sook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1. 10. 22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facial attra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clothing on the evaluation of task performance of target person mediated by subjects' likability toward and trait evaluation of the target person.

The facial attractiveness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used as index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this study. Three levels of facial attractiveness was manipulated based on the judgements by 30 female university students. Four types of clothes were selected perceived appropriate for two assumed situations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ree female faces having high, medium, and low attractiveness were simulated with the same body dressed four types of clothing respectively using CAD system, and a total of 12 stimulus persons were created.

The design for the experiment was a 3 x 4 x 2 randomized factorial, with three levels of facial attractiveness (high, medium, low), and four types attire (formal-masculine, formal-feminine, casual-masculine, casual-feminine), two kinds of context (job interview, dating) in which perceptions were occurr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524 male and female (262 of male, 262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from 3 universities in Kwangju, Korea.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fact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regression, path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bogus job interview,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facial attractiveness on task performance evaluation was .175 and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likability and trait evaluation was .285 in path analysis model.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appropriateness of clothing on task performance evaluation was .111 and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likability only was .0564 in pass analysis model.
2. In dating situation,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facial attractiveness on task performance evaluation was .355,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likability and trait evaluation was .188 in path analysis model.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appropriateness of clothing on task performance evaluation was .108,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likability and trait evaluation was .060 in pass analysis.

Key Words: perceived facial attractiveness(지각된 얼굴매력성), perceived appropriateness of clothing(지각된 의복 적절성), trait evaluation(특질판단), task performance evaluation(과업 수행 평가)

## I. 서론

### 1. 연구 목적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그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단서들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며(Heider, 1958; Kelley & Michela, 1980), 지각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단서들을 선택하고 단순화시킨다(Eiser, 1980). 따라서 대인지각의 과정은 타인들의 성격특질이나 개인적인 행동의 추론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적 단서들의 선택을 포함하며(Livesley & Bromley, 1973), 이때 특히 외모 단서가 선택되기 쉬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의복을 위시한 외모 단서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단순화시키고 이해하는데 이용된다고 가정된다는 것이다.

Lippman(1922)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모든 반응에 담긴 특수한 개인적 의미에 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과 집단들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는 것을 고정관념이라 명명하였다(Zanden, 1981). Lennon과 Davis(1989)는 사람들은 지각대상을 유사한 시각적 특성들에 따라 범주화하며, 이 범주화는 고정관념의 기초가 되고, 고정관념은 지각된 연령, 체형, 두발의 색, 사회적 지위, 인종이나

민족의 정체성, 성별 등의 여러 시각적 특성들에 근거된다고 하였다. Ashmore와 Del Boca(1979)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일상적인 사회적 인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였고, Kaiser(1990)는 고정관념이 과장적이거나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외모에 의해 제공되는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고 분류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름다운 것이 좋다"로 표현되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은 적어도 처음 만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신체적 매력성이 범주화의 기준 혹은 판단의 시발점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agly 등(1991)은 이와 같은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을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긍정적 특성들을 가질 것이라는, 신체적 매력성과 개인적 속성들 간의 추론적 관계로 보았고, 또한 매력적인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그러한 호의적인 대우가 그들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성은 실제로 다양한 긍정적 특질들과 상관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신체적 외모 향상을 위한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날씬함을 성취하기 위한 무리한 다이어트나 지방 흡입술의 폐해 사례 등이 보도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외모 지상주의가 가져오는 사회적 병폐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책의 결 표지만으로 그 내용을 모두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신체적 외모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모가 아닌 내부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상적일 뿐 현실적이 아니며,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것에 매료되지 않는다면 내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는 Kefgen과 Touchie-Specht(1976)의 주장은 대인관계에서 신체적 매력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인으로부터 더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Baro(1998)는 여성의 신체적 외모가 지능, 기민함, 직업 경력, 성격처럼 정당화되기 때문에 고용과 임금이 신체적 매력성에 근거하는 것을 차별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관심은 그것이 인기(popularity)의 중요한 결정요소라는 것을 최초로 관찰한 Perrin(1921)으로 소급되지만(Dion et al., 1972),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Miller(1970), Dion 등(1972)에 의해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주로 사진을 통해 판단된 총체적인 얼굴 매력성을 신체적 매력성 지표로 이용해 왔다(Feingold, 1988). Dion 등(1972)은 그간 대인매력의 선행 요건으로서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지 않은 이유를 개인의 노력으로 거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도 아름답지 않은 여성을 노력만으로 아름답게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사회심리학자들이 아름다움은 단지 피부 한 겹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았다.

신체적 매력성은 1970년대이래 주로 미국에서 사회심리학자들의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되어왔고, 최근 비교 문화적인 연구가 상당량 보고되고 있다.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가 신체적 매력성이 대인매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어느 사회에나 특질 판단이나 능력 혹은 생활 성과의 판단에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왔다. 정명선(2000), 정명선과 김재숙(2001)은 의류학 분야에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얼굴 매력성과 의복적절성을 조작한 실험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도 특질판단과 수행능력 판단에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과 의복적절성이 부분적으로 특질판단과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대상의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변인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주로 단순한 상관관계를 조사해왔고, 어떤 연구자도 특수한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원인들 간의 개연적 관계를 조사하지 않았으며(Spencer & Taylor, 1988), 매력성에 근거한 수행능력 차이 역시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Moran III & McCullers, 1984).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적 매력성이 특질판단과 수행능력 판단에 후광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과 의복 적절성이 주로 직업맥락에서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 근거하여, 대상의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대인지각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들 중 하나인 대상에 대한 호감도와 특질 판단을 매개하여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 인물의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미치는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의 직접적 영향과 그것들이 각각 호감도, 성격특질 판단이라는 매개변인들을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의복의 적절성이라는 개념은 상황에 비추어서만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인 관계로 피험자에게 제시한 과제 상황을 성과중심 상황과 사교중심 상황으로 분리·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 1) 지각된 얼굴 매력성: 피험자에게 제시된 자극 인물의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지각한 정도를 의미한다.
- 2) 지각된 의복 적절성: 피험자에게 제시된 자극 인물이 착용한 의복이 연구에서 설정한 성과

중심(전문직 채용을 위한 면접)상황과 사고 중심(이성과의 교제)상황에 적절하다고 지각한 정도를 의미한다.

- 3) 호감도: 피험자에게 제시된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 4) 특질 판단: 지각 대상의 특질들을 요인 분석하여 도출한 타인 배려성,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대한 지각자의 판단을 의미한다.
- 5) 수행능력 판단: 자극인물이 설정된 성과 중심적 상황의 과제인 채용과 사고 중심 상황의 과제인 교제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자의 판단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적 매력성 지표

Kenealy와 Shaw(1988)는 문화마다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다른 개념들을 소지하며, 한 주어진 사회 속의 미의 유형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비교 문화적으로 타당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Brown 등(1986)은 신체적 매력성 평가에서 야기되는 중요한 쟁점은 신체적 외모의 총체적 판단에서 얼굴과 신체의 매력성의 상대적 특출성(salience)이며, 그것들이 외모의 총체적 지각에 똑 같은 비중을 갖는지,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Baron과 Byrne(1977)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체적 매력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지라도, 우리의 판단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신체적 특성들 중 하나는 과다체중이고, 긍정적인 것들 중의 하나는 남성들의 큰 키라고 보았으며, 우리는 얼굴, 신체의 총체적 인상, 미소 등의 표현적 행동은 물론 우리를 응시하는 시간에도 반응한다고 하였다.

Mahoney와 Finch(1976)는 여성들의 신체적 매력성 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체중, 얼굴이었던 반면, 남성들의 경우 얼굴이 1위, 체중은 3위였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를 반복했던 Budge(1981)는 얼굴이 신체 변량의 50%를 설명했으며, 체중과 체형은 신체 변량의 약 10%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Collins와 Zebrowitz(1995)는 신장과 체중을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속성들로 보았고, Berscheid와 Walster(1974)는 특히 남성의 경우 매력성 변량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이 신장이라고 하였다. Alicke 등(1986)은 신체적 매력성 판단에 있어 얼굴 매력성과 신체(body)의 매력성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여성 자극 인물에게 수 영복을 차의시켜 실험한 결과, 얼굴 매력성(facial attractiveness)과 신체의 매력성(attractiveness of body) 모두 판단된 신체적 매력성(physical attractiveness)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Mueser 등(1984)은 얼굴이 약간 더 강한 신체적 매력성 예측 인자였지만,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의 매력성 모두가 그들의 총체적인 신체적 매력성의 예측인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Jones(1982)는 얼굴 매력성이 아니라 신체의 매력성이 총체적인 매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Perkins와 Lerner(1995)는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신체적 매력성 지표가 얼굴의 매력성이었음을 주시하고, 연구들간 평가 방법, 평가에 이용된 자료, 평가 절차가 다양하여 개념적 및 조작적인 비교 가능성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시각을 지지했던 것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들은 맥락주의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한 개인의 완전한 외모(즉, 의복, 행동, 맥락, 행동적 교환)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신체적 특성들(즉, 얼굴, 신체, 체중, 신장)에 반응하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성 평가를 위해 얼굴을 분리한 것을 오류로 보고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수의 신체적 매력성 지표들이 단일 지표보다 심리-사회적(psycho-social) 기능을 측정함에 있어 더 많은 변화를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얼굴과 전신의 매력성, 신장, 체중, 피하지방 두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얼굴 매력성이 신체적 매력성의 가장 빈번한 예측인자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얼굴의 매력성이 신체적 매력성을 측정하는 총

분한 지표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상과 같은 문헌들은 적어도 지각된 신체적 매력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Perkins와 Lerner(1995)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얼굴 매력성을 신체적 매력성 지표로 이용했던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도 얼굴의 매력성을 신체적 매력성의 지표로 선정하였다.

## 2. 신체적 매력성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Garcia(1998)는 신체적 매력성이 사회적 지각과 대인행동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강력한 변인이라고 밝혔고, Bruch 등(1998)은 신체적 매력성이 대인행동의 효율성과 높은 상관성을 갖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매력 없는 사람들보다 더 호의적인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추정하였다. Perrin(1921)은 신체적 매력성과 좋아하는 것간에 .60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고(Webster & Driskell, 1983), Miller(1970)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호감을 주고, 친절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민감한 것으로 지각되었다고 밝혔다. Kaiser(1990)는 신체적 매력성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매력적인 사람들이 매력 없는 사람들보다 상담, 제품판매 등에서 더 선호된다고 하였다. Dabbs, Jr.과 Stokes(1975), Powell과 Dabbs(1976)는 실제 상황에서는 '미의 위력'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 없는 여성들과 보다는 매력적인 여성들과 더 큰 대인거리를 유지하지만, 포스터를 이용한 실험상황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에 더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Kaiser, 1990). Sigall 등(1971)도 사람들은 매력 없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신체적 매력성이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신체적 매력성이 특질판단에 미치는 영향

Kalick(1988)은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을 측정

한 연구들이 주로 피험자들로 하여금 자극 인물들을 특질 차원에 따라 평가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은 주로 일련의 특질 추론이라고 하였다. Lucker 등(1981)은 신체적 매력성은 하나의 주관적 특질이며, "매력성에 대한 진실한 지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매력성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보다 특질 판단에서 의미 있게 더 많은 변량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Kaiser(1985)는 사람들은 관찰 대상들이 매력적일 경우 그들이 다른 긍정적인 특질들도 소지할 것이라 가정하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성이 개인들에게 천사의 후광과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주시하였다. Garcia 등(1997)은 데이트, 정치, 광고, 채용 상황, 교육기관, 법정 배경 등의 다양한 대인(interpersonal)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질들이 지배적으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귀인되어져 왔다고 하였다. Chia 등(1998)은 신체적 매력성은 성취 관련 특질들과 독창성 평가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ich(1975)는 교사들이 신체적으로 매력 없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어린이들에게 더 바람직한 성격을 부여했음을 발견하였다. Feingold(1992)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매력 없는 사람들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지적이고, 지배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Moran 등(1982)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사교성, 높은 지능 등 넓은 범위의 긍정적 가치가 있는 특질들이 귀인되었던 반면, 신체적으로 매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외모와 별 관련이 없거나 전혀 관련 없는 많은 부정적 특질들이 귀인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dams와 Huston(1975)은 다양한 연령의 피험자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은 매력 없는 사람들보다 더 사교적이고, 더 유쾌하고, 자경심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Guise 등(1982)도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매력 없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4. 신체적 매력성이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Umberson과 Hughes(1987)는 신체적 매력성을 개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성과 판단에 있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위 표지로 보았고, 개인들(예컨대, 학생들, 잠재적 피고용인들, 피고용인들)의 미래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나 고용주의 신체적 매력성 인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Webster와 Driskell(1983)은 피험자들이 신체적 매력성을 일반적인 능력의 지각과 관련시켰다는 것을 발견했고,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과제를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매우 일반화된 기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Landy와 Sigall(1974)은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이 수행자와 수행능력 모두의 평가 방법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수행자의 신체적 매력성과 전혀 무관한 과업수행능력이 평가될 때도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lifford와 Walster(1973)는 매력적이고 매력 없는 어린이들의 사진에 동일한 학교 성적을 부착하여 교사들에게 제시한 후 그 어린이들의 인상과 미래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게 한 결과, 매력적인 어린이들이 매력 없는 어린이들보다 더 높은 지능, 더 큰 교육적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지각되었다고 밝혔다. Lener 등(1990)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신체적 매력성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일치되는 학업 수행능력을 귀인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5. 의복 적절성이 호감도, 특질 및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Rowold(1984)는 지각자가 신체적 외모 단서의 의미에 관한 내현성격 이론에 근거하여 착의된 신체에 반응한다고 하였고, Kaiser(1985)는 의복 인지도는 사람에 따라 다를지라도, 우리 대부분이 타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의복을 이용하며,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각자들에 의해 조합된 이 인지의 지각요소들이 추론의 근

거가 되고 타인들에 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Kaiser(1983-1984, 1985)는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인 의복이 전달하는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며, 지각 대상이 착용하는 의복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정의하거나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Workman(1984-85)은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을 위해 착용하는 의복의 적절성 여부가 타인들이 그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에 영향을 주며, 의복의 적절성은 상황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의복이라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거나 부적절하게 지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Ree 등(1974)은 학생들이 타이틀 착용했을 때 지각된 적절성은 취업을 위한 면접과 대학 캠퍼스라는 두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Lennon과 Davis(1989a)는 모든 유형의 의복 단서들에 귀인되는 의미가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모든 사회적 상황들이 의도 단서들에 귀인되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Belleau 등(1988)은 여성은 전통적으로 사회에서의 특별한 역할과 지위를 투사하기 위해 착의하였고, 심미적인 외모 표현을 위해 패션에 의존하여 의복을 선택해왔으나, 직장 여성의 출현에 따라 직업 상황에 적절한 의복 선택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Christman과 Branson(1990)은 문헌을 통해 많은 면접자가 처음 4분 동안에 선택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을 주시하였고, 이는 면접자들이 의복과 신체적 외모 같은 비언어적 단서에 근거하여 장래 피고용인의 특질을 추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복은 노동 시장에서 한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면접 동안에 의복이 응모자의 전문적 이미지와 채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해 대상의 지각된 신체적 매력성이 대상에 대한 호감도, 특질판단, 수행능력판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의복의 적절성이 특질과 수행능력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상의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변인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특수한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원인들간의 관계의 개연성을 조사한 연구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Spencer & Taylor,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신체적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라는 태도의 인지적 측면이 호감도, 특질추론이라는 태도의 정서적 측면을 매개하여 수행능력이라는 행동적 측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검증코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3. 연구가설

가설 I :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은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을 매개하여 자극 인물의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 : 지각된 의복 적절성은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을 매개하여 자극 인물의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3(얼굴 매력성의 정도: 높은, 중간, 낮은 매력도) × 4(의복 유형:포멀한 스커트 정장, 포멀한 바지 정장, 캐주얼한 스커트 차림, 캐주얼한 바지 차림) × 2(과제 상황: 성과 중심/사교 중심) 요인설계로 하였다.

### 2. 실험 자극물 제작과정

1) 4학년 여대생 60명의 정면 얼굴을 촬영하여 인화한 후(9cm×12cm) 20명의 4학년 여대생 판단자 집단에게 제시한 후 지각된 얼굴 매력성을 1(높은), 2(중간인), 3(낮은)으로 표시케 하였고, 범주별 판단자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1명씩의 얼굴사진

을 자극인물의 얼굴로 선정하였다.

2) 4학년 여대생 30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집단에게 설정된 상황에 적절한 의복범주를 설문한 결과 취업 면접상황에는 정장이, 교제 상황에는 캐주얼한 차림이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예비조사 집단에게 각 범주 당 4벌씩의 의복을 제시하여 두 상황 각각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검은색 스커트 정장, 검은색 바지 정장, 청 자켓과 검은 스커트,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차림을 모델에게 착용시킬 의복으로 선정하였다.

3) 자극 인물의 체형을 통제하기 위해 얼굴 사진 촬영에 참여했던 60명의 여대생 중 가장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1명을 선정하여 선정된 4벌의 의복을 착용시킨 후 정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착의모델의 신장은 165cm, 체중 52Kg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매력성의 수준이 다른 3개의 얼굴에 4유형의 의복을 착용한 1명의 착의 모델의 신체 를 컴퓨터로 교체시켜 합성한 총 12개(10cm x 16cm)의 자극인물을 제작하였다.

### 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12개의 자극 인물 사진들 중 1개의 사진이 부착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질문지는 상황 시나리오만 달리한 2종류로 제작되었다.

- 1) 지각된 얼굴 매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매력있는-매력없는', '멋있는-멋없는', '아름다운 -아름답지 않은'의 3문항을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 2) 지각된 의복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진 속의 여성이 착용한 의복이 전문직 채용을 위한 면접(이성과의 데이트)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 3) 피험자의 자극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극인물을 좋아하는 정도(매우 좋아하는-매우 싫어하는), 호의적인 수준(매우 호의적-매우 비호의적), 호감의 정도 (매우 호

감이 가는-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의 3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 4) 자극 인물의 특질판단을 위해 여대생 6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와 선행 연구(Eagly 등, 1991; Feingold, 1992)에 근거하여 선정된 총 24개의 양극 특질을 7점 의미미분 척도로 구성하였다. 24개 의미미분 척도를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여 공통성이 낮고, 요인 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총 16문항으로 4개의 특질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4개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6, .78, .60, .62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 5) 자극 인물의 수행 능력 판단을 위해 '사진 속의 여성이 응모한 관리직에 채용될(오늘 만나기로 한 남성과 앞으로의 교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6) 피험자의 성별, 나이, 전공 등 피험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 4. 피험자

본 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3, 4학년 남녀 대학생 총 576명(남: 288명, 여: 288명)이었고, 24개의 각 실험 조건에 같은 수의 남녀(남: 12명, 여: 12명)를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피험자들의 전공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연령은 21세부터 28세까지로 확인되었다.

#### 5. 실험 절차

제작된 자극 인물의 얼굴의 얼굴 매력성 수준 조작의 타당도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1999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에 걸쳐 본 실험의 피험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여대생 120명을

<표 1> 의미미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n=524)

특질 차원	요인 부하량	고유값	전체 변량(%)	누적 변량(%)	신뢰도
<b>요인1: 타인 배려성</b>					
너그럽지 않은-너그러운	.757	2.66	19.5%	19.5%	.76
부정직한-정직한	.730				
진실하지 않은-진실한	.697				
동정적이지 아닌-동정적인	.632				
친절하지 않은-친절한	.606				
<b>요인2: 역능성</b>					
약한-강한	.797	2.57	14.3%	33.8%	.78
복종적인-지배적인	.767				
주장이 약한-주장이 강한	.747				
야심없는-야심있는	.742				
<b>요인3: 적응성</b>					
정서적으로 불안한-정서적으로 안정된	.656	2.28	12.6%	46.4%	.60
지적이 아닌-지적인	.637				
경솔한-신중한	.637				
미성숙한-성숙한	.620				
<b>요인4: 사교성</b>					
비사교적인-사교적인	.756	1.81	10.7%	57.1%	.62
이성을 싫어하는-이성을 좋아하는	.685				
이성이 싫어하는-이성이 좋아하는	.640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1999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피험자에게 24개 실험 조건들 중 1개의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질문지에 부착된 여성의 사진과 제시된 상황 시나리오를 읽은 후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피험자들로부터 수집된 질문지 552부 중 응답이 불완전한 28부를 제외한 52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7.5.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기술통계, 회귀 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성과중심 상황에서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변인들의 효과

자극 인물의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자극 인물의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호감도와 특질판단에 미친 영향과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지각된 의복 적절성, 호감도, 특질판단이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제 상황별 관련 변인들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성과 중심 상황의 경우 <표 2>, <표 3>, 사고 중심 상황의 경우 <표 4>,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2>는 성과 중심 상황에서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 변인인 지각된 얼굴 매력성, 지각된 의복 적절성과 매개변인(종속변인)인 호감도, 특질판단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 모두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각각  $\beta = .589$ ,  $\beta = .201$ )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p < .001$ ), 이것들이 설명한 변량은 45.0%로 나타났다. 지각된 의복 적절성은 타인 배려성, 역능성, 적응성 사고성 차원의 특질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지각된 얼굴 매력성만 이러한 특질판단( $\beta = .468$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이것이 설명한 변량은 21.9%였다.

다음으로, 자극 인물의 채용 가능성 판단에 미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beta = .175$ ,  $p < .01$ ), 지각된 의복 적절성( $\beta = .111$ ,  $p < .05$ ),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beta = .281$ ,  $p < .001$ ), 자극 인물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 $\beta = .255$ ,  $p < .001$ )이 모두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채용 가능성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변인들이 설명한 총

<표 2>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호감도와 특질판단에 미친 영향

(n=262)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표준 오차	$\beta$	t	F값	R2
호감도	지각된 얼굴 매력성	상수(1.932) .438	(1.36) .036	.589	14.210*** 12.317***	106.14***	45.0
	지각된 의복 적절성	.124	.030	.201	4.201***		
특질판단	지각된 얼굴 매력성	상수(3.596) .218	(.090) .026	.468	39.891*** 8.549***	73.079***	21.9

\*\*\*:  $p < .001$

<표 3> 지각된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호감도, 특질판단이 채용 가능성 판단에 미친 영향

(n=26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표준 오차	$\beta$	t	F값	R2
채용 가능성 판단	지각된 얼굴 매력성	.162	.060	.175	2.697**	43.71***	40.5
	지각된 의복 적절성	.085	.040	.111	2.142*		
	호감도	.352	.084	.281	4.201***		
	특질판단	.508	.113	.255	4.508***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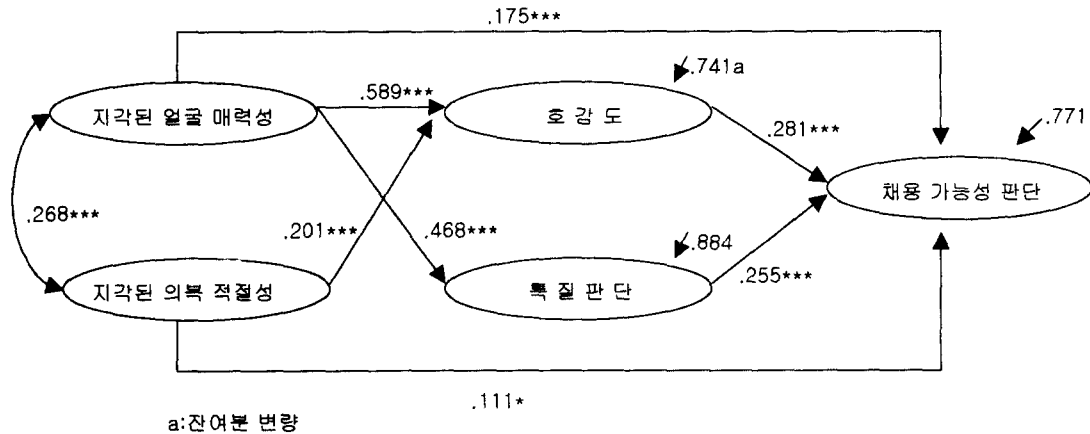
변량은 40.5%로 나타났다(F=43.71; p<.001).

위와 같은 회귀 분석을 토대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경로 모형이 구성되었다.

<그림 1>에서 보면,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자극 인물의 채용 가능성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미친 직접 효과의 경로계수는 .175로 나타났고, 지각된 의복 적절성의 직접 효과의 경로계수는 .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친 변인이라는 것과 지각된 얼굴 매력성이 지각된 의복 적절성보다 수행능력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행능력 판단에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면접자들이 의복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에 근거하여 장래 피고용인의 특질을 추론하기 때문에 의복은 노동시장에서 한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Christman과 Branson (1990)의 견해를 지지하지만,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에서 여성 응모자의 신체적 매력성보다 의복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Johnson과 Roach-Higgins(1987)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한편,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을 매개하여 채용 가능성 판단에 미친 간접 효과는 .285(.589 × .281 + .468 × .25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직접효과보다는 호감도와 특질 판단을 경유하여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간접효과가 더 컸다는 것



<그림 1> 채용 가능성 판단에 이르는 경로모형

을 의미한다. 이는 선정된 변인들간 긍정적인 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 것을 의미하며, 지각된 얼굴 매력성이 호감을 유발시키고 긍정적인 특질을 추론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행능력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의 과정이 감각만이 아닌 해석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행동한다는 주장(Zanden, 1981, pp. 45-46)과 상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다수의 특질들이 하나의 조직화된 관계로 군집된다고 가정하는 내현 성격이론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즉각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시하는 것을 초월하여 한 개인의 특성과 행동까지를 추론하게 한다"는 주장(Zanden (1987, pp. 42-43)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의복 적절성은 호감도만을 경유하여 수행능력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간접효과는 .0564(.201×.281)로 나타나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직접효과보다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특질판단을 매개하지 않고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근 대학생들의 의복 규범이 완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수행능력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그들이 직업을 위한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의복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사고 중심 상황에서 수행능력 판단에 미친 변인들의 효과

<표 4>는 사고중심 상황에서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얼굴 매력성, 지각된 의복 적절성, 매개 변인(종속 변인)인 호감도, 특질판단간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 모두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각각  $\beta = .408, \beta = .119$ ), 특질판단(각각  $\beta = .469, \beta = .197$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들이 호감도와 특질 판단을 설명한 변량은 각각 20.7%, 32.1%로 나타났다.

자극 인물의 교체 성공 가능성 판단에 미친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지각된 의복 적절성,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beta = .355$ ), 지각된 의복 적절성( $\beta = .108$ ),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beta = .344$ ), 특질판단( $\beta = .103$ )이 모두 자극 인물의 교체 성공 가능성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61.0%로 나타났다.

<표 4>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호감도와 특질판단에 미친 영향

(n=262)

독립변인	종속변인	B	표준 오차	$\beta$	t	F값	R2
지각된 얼굴 매력성	호감도	상수(3.579)	(.095)		37.723***	33.767***	20.7
지각된 의복 적절성		.176	.025	.408	7.110***		
	특질 판단	.042	.021	.119	2.067***	60.889***	32.1
지각된 얼굴 매력성		상수(3.195)	(.105)		30.494***		
지각된 의복 적절성	.226	.026	.469	8.601***			
	.083	.023	.197	3.624***			

\*\*\*: p<.001

<표 5> 얼굴 매력성, 지각된 의복 적절성, 호감도, 특질판단이 교체 성공 가능성 판단에 미친 영향

(n=262)

독립변인	종속변인	B	표준 오차	$\beta$	t	F값	R2
		상수(-.460)	(.380)		-1.211		
지각된 얼굴 매력성	교제	.378	.070	.355	5.428***	100.024***	61.0
지각된 의복 적절성	성공	.101	.040	.108	2.520*		
호감도	가능성	.419	.087	.344	4.801***		
특질판단	판단	.228	.112	.103	2.036*		

\*: p<.05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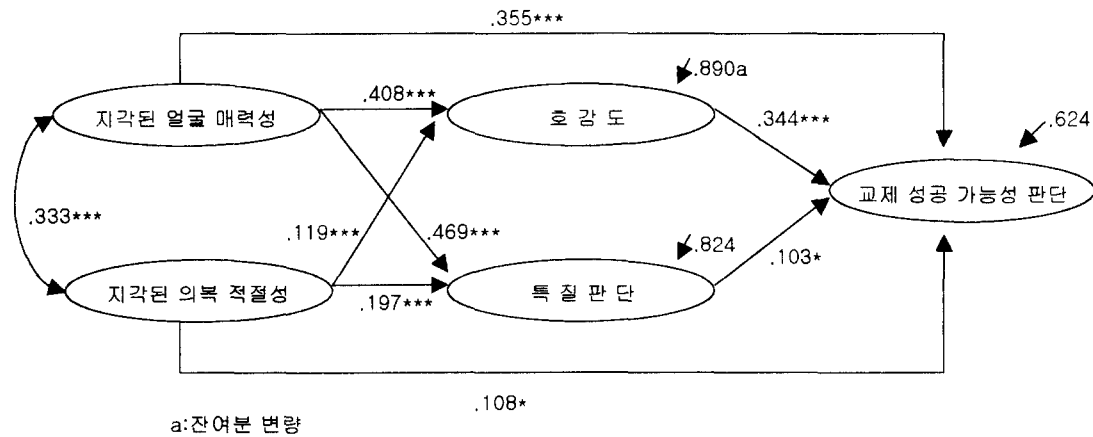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 변인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2>와 같은 경로 모형이 구성되었다.

<그림 2>에서 보면,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자극 인물의 교체성공 가능성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미친 직접 효과의 경로계수는 .355로 나타났고, 지각된 의복 적절성의 직접 효과의 경로계수는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상황에서 지각된 얼굴 매력성과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친 변인이었다는 것과 지각된 얼굴 매력성이 지각된 의복 적절성보다 수행능력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중심상황에서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이 상황에서 지각된 얼굴 매력성의 직접효과가 월등하게 더 컸다는 사실이 주시되며, 이는 연구자들이 신체

적 매력성이 최대의 효과를 갖는 맥락으로 로맨틱한 상호작용을 선정했던 이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eingold, 1988).

한편,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을 경유하여 교체 성공 가능성 판단에 미친 간접 효과는 .188(.408×.343+.469×.103)로 지각된 얼굴 매력성의 직접 효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즉각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이 매력 없는 여성보다 이성과의 교제에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사람들은 개인과 집단을 즉각 판단할 수 있는 스타일로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고(Lippman, 1922), 외모 단서에 근거하여 타인들을 범주화하는 무의식적인 인지적 경향을 갖는다는



<그림 2> 교체 성공 가능성 판단에 이르는 경로모형

내현 성격이론에 비추어 볼 때(Lennon & Davis, 1989),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범주화의 단서로 작용했다는 것과 신체적 매력성이 이성과의 로맨틱한 관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호감도, 특질판단을 매개하여 교제 성공 가능성 판단에 미친 간접 효과는  $.060(.119 \times .344 + .197 \times .103)$ 으로 나타나, 성과 중심 상황에서 달리 호감도와 특질판단을 매개하여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 인지도는 사람에 따라 다를지라도, 우리 대부분이 타인들의 정체성을 이해를 하고자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의복을 이용하며,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각자들에 의해 조합된 이 인지의 지각요소들이 추론의 근거가 되고 타인들에 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는 Kaiser(1985, pp.167-175)의 주장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인 의복이 전달하는 의미는 맥락에 의존한다는 견해(Kaiser, 1983-1984)를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의복 단서에 귀인되는 의미가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모든 사회적 상황이 의복 단서들에 귀인되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더 나아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Lennon과 Davis(1989)의 제안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해석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각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은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을 매개하여 자극 인물의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던 가설 I은 두 상황 모두에서 지지되었으나, 지각된 의복 적절성이 자극 인물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 특질판단을 매개하여 자극 인물의 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I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신체적 매력성 지표로 선정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상황에 따른 의복 적절성을 독

립변인으로 하고 특질판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한국 사회에도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과 지각에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힌 연구(정명선 & 김재숙, 2001)에 이어, 상기한 독립변인들이 호감도와 특질판단을 매개하여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설정된 두 상황 모두에서 지각된 얼굴 매력성이 호감도, 특질판단을 경유하여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 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의복 적절성 역시 수행능력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상황에 따라 변인들 간 인과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피험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했고, 실제 인물이 아닌 사진을 이용했다는 제한점을 지니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지각자가 신체적 외모단서에 관한 내현성격 이론에 근거하여 착의된 신체에 반응한다는 사실과 대인지각에서 신체적 외모가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거의 매일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매체 이미지들과 광고의 공세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의 많은 사회적 맥락에서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성의 부족을 비신체적 속성들로 보상하여 공평성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밝힌 Feingold(1981)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신체적 매력성이 대인매력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즉,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지만 표면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매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신체적 매력성 효과를 경시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체적 매력성은 타고난 특성일 수 있는 한편, 의복, 화장품, 성형수술이나 복원수술, 다이어트, 및 운동이 지각되는 신체적 매력성의 정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될 수 있는 특성이라는 점이 주시된다. 오늘날의 거대한 패션산업의 실체가

그 사실을 반증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신체적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행동적 국면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물질적 대상과 인간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의류학 분야에서 신체적 매력성의 본질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구명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또한 신체적 매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측면, 예컨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경심이나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한 후 개인의 자경심을 높이고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정명선(2000).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대인지각과 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명선, 김계숙(2001).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특질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39(2)
- Adams, G. R., & Huston, T. L.(1975). Social Perception of Middle-Aged Persons Varying in Physical Attract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67-658.
- Alicke, M., Smith, R., & Klotz, M.(1986). Judgmen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The Role of Faces and Bod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381-389.
- Ashmore, R. D., & Del Boca, F. K.(1979). Sex Stereotypes and Implicit Personality Theory : Toward a Cognitive-Social Psychological Conceptualization. *In Eagly et al.*
- Baro, R. J.(1998). So You Want to Hire Beautiful. Well, Why Not? *Business Week*, 03/16/98, Issue 3569, 18.
- Baron, R. B., & Byrne, D.(1977).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2nd ed.), London: Allyn and Bacon, Inc., 212-213.
- Belleau, B. D., Miller, K. A., & Church, G. E.(1988). Maternity Career Apparel and Perceived Job Effectiven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2), 30-36.
- Berscheid, E., & Walster, E.(1974).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s About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Based on Social and Professional Competence Inform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2), 225-231.
- Brown, T. A., Cash, T. F., & Noles, S. W.(1986). Percep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mong College Students: Selected Determinants and Methodological Matt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3), 305-316.
- Bruch, M. A., Berko, E. H., & Hasse, R. F.(1998). Shyness, Masculine Ideology,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Inexpressiveness : Testing a Mediation Model of Men's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84-97.
- Budge, H. S.(1981). Dimens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How Others See Us. *In Lennon, S. J.(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5-203.
- Chia, R. C., Allred, L. J., Grossnickle, W. F., & Lee, G. W.(1998). Effects of Attractiveness and Gender on the Perception of Achievement-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4), 471-477.
- Christman, L. A., & Branson, D. H.(1990). Influe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Dress of Female Job Applicants on Interview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3), 51-57.
- Clifford, M. M., & Walster, E.(1973). The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Teacher Expectation. *Sociology of Education*, 46, 248-258.
- Collins, M. A., & Zebrowitz(1995). The Contributions of Appearance to Occupational Outcomes in Civilian and Military Sett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2), 129-163.
- Dion, K. K., Berscheid, E. & Walter, E.(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3), 285-290.
- Eagly, A. H., Ashmore, R. D., Makhijani, M. G., & Longo, L. C.(1991). What is Beautiful is Good, But : A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Psychological Bulletin*, 110(1), 109-128.
- Feingold, A.(1988). Matching for Attractiveness in Romantic Partners and Same-Sex Friends: A Meta-analysis and Theoretical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4(2), 226-235.
- Feingold, A.(1992). Good-Looking People are not What We Think. *Psychological Bulletin*, 111, 304-341.
- Garcia, S. D. (1998). Appearance Anxiety, Health Practices, Metaperspectives and Self- Per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3(2), 307-318.
- Garcia, S., Khersonsky, D., & Stacey, S.(1997). Self-percep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4, 243-250.
- Guise, B. J., Pollans, C. H., & Turkat, I. D.(1982).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Perception of Social Skill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4,

- 1039-1042.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Kaiser, S. B. (1983-1984).
  - Jones, R.(1982). The Importance of Face and Body in Percep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Brown, T. A., Cash, T. F., & Noles, S. W.(1986).
  - Kaiser, S. B.(1983-1984). Toward a Contextual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A Synthesis of Symbolic Interactionist and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1), 1-9.
  - Kaiser, S. B.(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67-175, 188-191, 253.
  - Kaiser, S. B.(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55.
  - Kalick, S. M.(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s a Status Cu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469-489.
  - Kefgen, M., & Touchie-Specht, P.(1976).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A Guide for the Consumer.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37-42.
  - Kenealy, P., & Shaw, W.(1988). Influence of Children's Physical Attractiveness on teacher Expecta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3), 373-383.
  - Landy, D., & Sigall, H.(1974). Beauty is Talent: Task Evaluation as a Function of the Performer's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3), 299-304.
  - Lennon, S. J., & Davis, L. L.(1989a).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 Theoretical Perspectiv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4), 41-48.
  - Lerner, R. M., Delaney, M., Hess, L. E., Jovanovic, J., & Von Eye, A.(1990). Early Adolescent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cademic Compet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0, 4-20.
  - Lucker, G. W., Beane, W. E., & Helmreich, R. L. (1981). The Strength of the Halo Effect in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The Journal of Psychology*, 107, 69-75.
  - Mahoney, E. R., & Finch, M. D.(1976). The Dimensionality of Body-Cathexis. *The Journal of Psychology*, 92, 277-279.
  - Miller, A. G.(1970). Rol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Impression Formation. *Psychometric Science*, 19, 241-43.
  - Moran III, J. D., & McCullers, J. C., & Banilivy, M.(1982). Young Children's Con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as Evidenced in Human Figure Drawing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55-361.
  - Mueser, K. T., Grau, B. W., Sussman, S., & Rosen, A. J.(1984). You're Only as Pretty as You Feel: Facial Expression as a Determinant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69-478.
  - Perkins, D. F., & Lerner, R. M.(1995). Single and Multiple Indicator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sychosocial Behavior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3), 268-297.
  - Rees, D. W., Williams, L., & Giles, H.(1974). Dress Style and Symbolic Meaning. In Lennon, S. J. & Davis, L. L.(1989).
  - Rich, J.(1975). Effects of Children's Physical Attractiveness on Teacher's Evalu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599-609.
  - Rowold, K. L.(1984). Sensitivity to the Appearance of Others and Projection as Factors in Impression Manage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05-111.
  - Sigall, H., Page, R., & Brown, A.C.(1971). Effort Expenditure as a Function of Evaluation and Evaluation Attractiveness. In Lewis, K. N., & Walsh, W. B.(1978). Physical Attractiveness: Its Impact on the Perception of a Female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210-216.
  - Spencer, B. A., & Taylor, G. S.(1988). Effects of Facial Attractiveness and Gender on Causal Attributions of Managerial Performance. *Sex Roles*, 19, 273-289.
  - Umberson, D., & Hughes, M.(1987). The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27-236.
  - Webster, M., & Driskell, J. E.(1983). Beauty as Stat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140-65.
  - Workman, J. E.(1984-85). Effects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ttire on Attributions of Personal Disposition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20-24.
  - Zanden, J. W.(1981). Social Psychology(3rd ed.). New York: Random House, 43-44, 45-46, 141.